

漢武帝「獨尊儒術」再論*

— 《鹽鐵論》을 중심으로 —

朴晟鎮**

〈목 차〉

- I. 서론
 - II. 《鹽鐵論》의 성격
 - III. 桑弘羊의 儒家 비판
 - IV. 昭帝 시기 儒家 위상
 - V. 결론
-

I. 서론

주지하듯 漢武帝가 유교를 국교로 채택한 이른바 「獨尊儒術」 정책은 전통 중국 사회의 학술과 정치 및 사상 등 제방면에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그 발안자로 董仲舒를 지목하고 그의 주장을 채택한 무제의 업적을 《漢書》〈武帝紀〉에서는 「罷黜百家 表章六經」이라고 선양하였고, 후일 史家들은 그것을 「罷黜百家 獨尊儒術」이란 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상식으로 굳어진 통설에 대하여 최근 회의가 제기되었다. 그 초점은 첫째, 「罷黜百家 獨尊儒術」이 동중서의 발안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둘째, 그것이 실제로 무제 이후 실행되었는가에 집중된다.¹⁾ 이들은 《史記》와 《漢書》를 천착하며 주로 年代 고증과 文句의 함의 분석에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대 중문과 부교수

1) 劉偉杰 〈漢武帝獨尊儒術問題的研究現狀與反思〉: 《南京社會科學》, 2007년, 제2기 참조. 유씨는 이 글에서 孫景壇 〈漢武帝罷黜百家獨尊儒術子虛烏有〉: 《南京社會科學》, 1991년, 제6기와 管懷倫 〈漢武帝罷黜百家獨尊儒術確有其事-與孫景壇同志商榷〉: 《南京社會科學》, 1994년, 6기 등을 거론하며 논의에 대한 정리를 한 바 있다.

치중하고 공박하며 啓發을 주기도 했지만, 같은 자료를 완전히 상반되게 이해하는 문제를 노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필자는 중국에서의 논쟁 상황을 인지 못한 채, 필자 개인의 先秦 兩漢 학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이것에 관하여 나름의 소략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요지와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史家들의 서술에 따르면 武帝는 즉위한 후 강력하게 天子의 권위와 나라의 통일을 반겨줄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원했으며 이것이 바로 유명한 「罷黜百家 獨尊儒術」의 정책을 실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罷黜百家 獨尊儒術」 정책은 董仲舒의 건의를 武帝가 받아들여 시행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中國大百科全書-中國歷史》에도 「前140年 建元 元年 董仲舒對策, 罷黜百家 獨尊儒術」라고 기록되어 있다.²⁾ 이것은 이미 하나의 상식처럼 통하는 설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상식은 매우 비상식적인 지점에서 출발한다. 우선 建元 元年(기원전 140년)은 武帝(기원전 156년 출생)가 15세의 소년이라는 점이다. 당시 실질적인 권력자는 무제의 할머니 竇太后로, 그녀는 黃老術을 신봉하고 儒學을 경멸하던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인물이었다. 아들 景帝에게 黃老術을 강요하는 竇太后的 모습을 볼 때³⁾ 15세 소년이 祖母의 뜻을 거스르고 또한 개국 이래의 기본국책을 뒤흔들 건의를 받아들이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⁴⁾

목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근자에 桓寬이 쓴 《鹽鐵論》을 읽은 뒤, 獨尊儒術에 대한 질문이 이른바 隔鞋搔癢이라고 느껴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에 소개한 중국학자들도 《鹽鐵論》을 주목하지 못한 채 「독존유술」 논의를 전개하였다. 필자는 《鹽鐵論》이야 말로 漢 武帝와 그 후 학술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원전라고 판단하고 이에 본고를 기획하였다.

2) 《中國大百科全書-中國歷史》(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5) 214쪽 참조. 建元 元년에 무제가 동중서의 대책을 채택하였고, 建元 6년 「獨尊儒術」의 국책이 완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班固 《漢書》〈外戚傳〉: 「竇太后好黃帝, 老子言, 景帝及諸竇不得不讀老子, 尊其術」.

4) 拙稿 《漢代罷黜百家獨尊儒術札記》《中國語文論譯叢刊》12집, 2004 참조.

II. 《鹽鐵論》의 성격

《鹽鐵論》은 前漢 昭帝(기원전 87-74년 재위) 始元 6년(기원전 81년)에 있었던 鹽鐵會議에 관한 자료를 宣帝(기원전 73-49년 재위) 때에 廬江太守丞이었던 桓寬이 정리하여 편찬해낸 책이다.⁵⁾ 이 책의 구성은 제1편〈本義〉부터 제60편〈雜論〉까지 주제에 따라 모두 60편으로 나뉘어 정리되어 있는데, 각 편마다 염철회의에 참여한 토론의 쌍방이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서로 힐난하는 대화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무제(기원전 140-87년 재위)시기에 행해진 鹽鐵, 均輸, 平準, 酒榷 등 일련의 국가적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존재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량과 문학들은 민간의 어려움에 대한 황제의 물음에 「소금과 철, 술 등의 전매를 관리하는 관청과 均輸를 담당하는 관청을 철폐하여 天下와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말 것을 청하고, 절약 근검의 모범을 보인 뒤에야 教化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御史大夫 桑弘羊은 이를 반대하면서, 「鹽鐵酒의 전매와 均輸 등은 국가의 大業으로서 四夷를 제압하여 변방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의 바탕이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⁶⁾ 염철회의를 마친 다음에, 어사대부 상홍양과 丞相 車千秋등이 上奏하여, 「賢良과 文學은 정부의 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외람되이 鹽鐵의 전매가 불편하다고 하니, 郡國의 榷沽와 關內의 鐵官를 철폐하자」고 청하였고, 황제는 받아 들였다.⁷⁾ 결국 鹽·鐵·酒의 독점적 생산과 판매 가운데서 술 전매의 전면적 해제와 철 판매의 일부 해제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라, 염철회의의 결과는 종래의 정책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 후 始元 6년 7월에

5) 班固《漢書》〈公孫賀等傳贊〉참조.

6) 《漢書》〈食貨志〉: 「始元六年, 詔郡國舉賢良文學士, 問以民所疾苦, 於是鹽鐵之議起焉…… 昭帝即位六年, 詔郡國舉賢良文學之士, 問以民所疾苦, 教化之要. 皆對願罷鹽鐵酒榷均輸官, 毋與天下爭利, 視以儉節, 然後教化可興. 弘羊難, 以爲此國家大業, 所以制四夷, 安邊足用之本, 不可廢也. 乃與丞相千秋共奏罷酒酤.」《鹽鐵論》〈本議〉: 「文學對曰: 竊聞治人之道, 防淫佚之原, 廣道德之端, 抑末利而開仁義, 毋示以利, 然後教化可興, 而風俗可移也. 今郡國有鹽·鐵·酒榷·均輸, 與民爭利. 散敦厚之朴, 成貪鄙之化. 是以百姓就本者寡, 趨末者衆. 夫文每秒則質衰, 末盛則本方. 末修則民淫, 本修則民慤. 民慤則財用足, 民侈則飢寒生. 願罷鹽鐵·酒榷·均輸, 所以進本退末, 廣利農業, 便也.」

7) 《鹽鐵論》〈取下〉: 「奏曰: 賢良·文學不明縣官事, 猥以鹽·鐵爲不便. 請且罷郡國榷沽·關內鐵官. 奏, 可.」

제2차 염철회의가 있었다. 이는 《鹽鐵論》에서 어사대부 상홍양이 「지난번에 公事에 대해 의논할 때, 賢良과 文學은 지나간 고대의 일을 칭송하며 인용하여, 지금 당장에 힘써야 할 급한 일과 괴리됨이 적지 않았다」고 하면서 匈奴를 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셔도 알 수 있다.⁸⁾ 따라서 제2차 회의는 염철을 논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정책에 관한 회의였다. 따라서 《鹽鐵論》의 제1편 〈本議〉부터 제41편 〈取下〉까지는 제1차 염철회의의 내용을, 제42편 〈擊之〉편부터 제59편 〈大論〉까지는 제2차 염철회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2차 회의에서 다루는 사안은 달라졌지만 쌍방의 기본 사상과 노선은 불변하며 철저하게 대립한다.

염철논쟁의 구체적 발단과 참여 인사들의 면면은 다음 기록에서 알 수 있다.

昭帝 始元 5년, 황제가 조칙을 내려, 「三輔와 太常으로 하여금 賢良을 각 2인씩 천거케 하고 郡國에서는 文學高第를 각 1인씩 천거케 하며, 中二千石 이하 吏民에 이르기까지 爵을 각각 차등 있게 賜與하게 하라」와 昭帝 「始元 6년 2월에 담당 관리와 郡國이 천거한 賢良과 文學에게 皇帝가 백성의 아픔과 고생을 묻고 소금과 철, 술 등의 전매제도에 대해 의논하여 혁파하게 한」 것이다.⁹⁾ 이 부분에 대하여 《鹽鐵論》에서는 「始元 6년에 詔書를 다시 내려 丞相과 御史大夫로 하여금 이미 천거된 賢良과 文學과 의논하여 민간의 어려움을 알아보게 하였다」¹⁰⁾ 이때 「賢良으로는 茂陵縣 출신의 唐生과 文學으로는 魯國 출신의 萬生 등의 무리 60여 명이 모두 궁정에 모여 六藝의 가르침을 펼치고 태평의 근원에 대해 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¹⁾

8) 《鹽鐵論》〈擊之〉: 「大夫曰: 前議公事·賢良·文學稱引往古, 頗乖世務. 論者不必相反, 期于可行. 往者, 縣官未事胡·越之時, 邊城四面受敵, 北邊尤被其苦. 先帝絕三方之難, 撫從方國, 以爲蕃蔽, 窮報郡國, 以討匈奴. 匈奴壤界獸圈, 孤弱無與, 此固亡之時也. 遼遠不遂, 使得復喘息, 休養士馬, 負給西域. 西域迫近胡寇, 沮心內解, 必爲巨患. 是以主上欲掃除, 煩倉廩之費也. 終日逐禽, 罷而釋之, 則非計也. 蓋舜紹緒, 禹成功. 今欲以軍興擊之, 何如?」.

9) 班固 《漢書》〈昭帝紀〉: 「五年 六月 其令三輔、太常舉賢良各二人, 郡國文學高第各一人. 賜中二千石以下至吏民爵各有差.」: 「六年 二月, 詔有司問郡國所舉賢良文學民所疾苦. 議罷鹽鐵榷酤 秋七月, 罷榷酤官, 令民得以律占租, 賣酒升四錢.」

10) 《鹽鐵論》〈本議〉: 「惟始元六年, 有詔書使丞·御史與所舉賢良·文學語. 問民間所疾苦.」

11) 《鹽鐵論》〈雜論〉: 「賢良茂陵唐生·文學魯萬生之倫六十余人, 咸聚闕庭, 舒六藝之風,

즉 회의에 참가한 구성원은 조정에서는 상홍양, 차천추 외 그의 예하 관원들이었고, 민간 대표로는 선발된 현량과 문학이다. 그리고 회의의 본래 목적은 염철 등 국가 경제정책이 주 안건이었다. 그러나 桓寬이 말한 대로 혹자는 仁義를 추구하고 혹자는 權勢를 추구하는, 즉 세계관의 충돌이 노정되는 회의가 되었다.¹²⁾

《鹽鐵論》연구에서 대표적 저술을 낸 두 사람, 郭沫若과 王利器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淸말의 쑹방 대립의 본질이 儒家와 法家의 투쟁이라고 판단하였다.¹³⁾ 왕리기는 초기에는 유법투쟁설을 주장하다가 후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유법투쟁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¹⁴⁾ 그는 수정한 〈前言〉에서 쑹방은 모두 유가에 속하며 상홍양 및 관료들 법가가 섞인 雜儒, 전통적 孔孟의 도에 치우친 文學과 賢良을 純儒라고 보았다. 獨尊儒術 이후 법가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왕리기의 설명은 우선 獨尊儒術을 인정하고 전제한 것인데 과연 당시에 소위 雜儒와 純儒의 분류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순유라 예시한 董仲舒도 춘추학과 음양가를 섞은 인물로 판단하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淸말의 말대로 昭帝시기에 儒法투쟁이 벌어졌다고 말한다면 武帝의 獨尊儒術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漢武帝 獨尊儒術의 실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다시 《鹽鐵論》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60명이 넘는 것이 확실하지만 본문에서는 여섯 개의 호칭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朝廷측의 참가자로 본문에서 丞相은 田千秋, 御史大夫는 桑弘羊, 丞相과 御史大夫의 수하들은 丞相史와 御史로 지칭한다. 단 《鹽鐵論》 본문에서 상홍양은 大夫로 출현한다. 조정 측 인사로 승상은 한두 마디를 했을 뿐, 거의 모든 발언은 상홍양이 주도하며, 승상사와 어사는 상홍양을 보조하는 역할로 나온다.¹⁵⁾

論太平之原。」

12) 《鹽鐵論》(雜論): 「公卿과 文學 및 賢良 등의 발언은 그 주장이 각각 다르고 그 논제도 서로 달라, 혹자는 仁義를 숭상하고 혹자는 권세와 財利를 힘써 추구하였다(公卿·文學·賢良之論, 意指殊路, 各有所出, 或上仁義, 或務權利)」.

13) 郭沫若 《鹽鐵論讀本》〈序〉(科學出版社, 北京, 1957).

14) 王利器 《鹽鐵論校注》〈前言〉(古典文學出版社, 北京, 1958)에서는 유법투쟁 견해를 제출했으나, 그 후 《鹽鐵論校注(定本)》〈前言〉(中華書局, 北京, 1992)에서는 유가내의 투쟁으로 수정하였다. 본고는 王利器의 중화서국본을 대본으로 하였다.

15) 丞相의 본명은 田千秋였으나, 昭帝가 그의 연로함을 고려해 入朝할 때 乘車를 허용했

民間의 대표는 賢良과 文學인데, 현량은 품행이 賢良方正한 사람으로 文帝 2년부터 각지의 수령이 민간에서 추천을 받아 조정에 천거하였지만 반드시 실제 벼슬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 주의할 것은 「文學」이란 호칭과 그들의 속성이다. 당시 文學은 단지 글을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 경전에 익숙한 유생을 뜻한다.¹⁶⁾ 《鹽鐵論》〈雜論〉에는 몇 사람의 민간 측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본문에서는 해당 발언자의 성명이 생략된 채 賢良 및 文學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결국 60여명의 유가들과 상홍양 한사람이 논쟁을 벌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鹽鐵論》에 승상, 대부, 승상사, 어사, 현량, 문학으로 발언자가 나타나지만 신원이 확실한 이는 승상 전천추와 어사대부 상홍양뿐이다. 다만 승상은 불학 무술과 침묵의 처세로 자리에 오른 자로 그의 발언은 논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¹⁷⁾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桑弘羊이다. 왕리기의 고증에 따르면, 그는 景帝 2년(기원전 155년)에 洛陽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기원전 147년 侍中이 되었고, 昭帝 元鳳 원년(기원전 80년)에 75세의 나이로 모반에 연루되어 처형 되었다. 관료로서의 경력은 시중에서 시작하여 무제 원정 2년부터 大司農中丞 5년을 맡은

기 때문에 ‘車丞相’이라는 별칭이 생겼고, 이것이 관행이 되어 《漢書》에도 그를 ‘車千秋’로 표기하였다. 桓寬은 《鹽鐵論》〈雜論〉에서 승상을 이렇게 평하였다. 「車丞相은 周公과 呂尙의 반열에 올라 중추적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보신에만 급급하다가 가버렸으니,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 御史大夫는 御史들의 수장이다. 漢代 御史의 직무는 크게 황제의 비서관적인 성격과 감찰 관적인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御史들의 수장이 御史大夫이고, 御史大夫는 丞相다음가는 자리다.

- 16) 張大可 〈論文學賢良〉, 《天水師專學報》1984, 1기 및 郭沫若와 王利器의 전개서 〈序〉 및 〈前言〉 참조.
- 17) 田千秋는 鹽鐵論爭 중에 단 두 번만, 그것도 아주 짧은 질문만 던졌을 뿐이다. 《漢書》〈車千秋傳〉을 보면 그가 寡言을 保身으로 활용한 사례가 나온다. 참고로 각자의 발언 빈도는 다음과 같다. 민간 측에서는 文學의 발언이 가장 많아서 제1차 토론(즉 〈擊之〉 이전)에서 79회, 제2차 토론에서는 43회, 모두 122회 발언하였고, 賢良은 제1차에서 26회 발언하였으나 제2차에서는 발언이 없었다. 조정 측에서는 御史大夫 상홍양의 발언이 가장 많아서, 제1차 토론에서 78회, 2차에서 36회, 모두 114회 발언하였고, 다음으로는 御史가 제1차에서 11회, 2차에서 8회, 모두 19회 발언하였으며, 丞相史는 제1차에서 15회 발언하고 2차에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丞相은 제1차에서 단 2회 발언하였을 뿐이다. 필자가 보기에 2차 회의는 상홍양이 문학을 지목해 요청한 회의 같다. 馬非百 《鹽鐵論簡注》中華書局, 1984, 참조.

뒤, 무제 원봉 원년부터 治粟都尉 겸 大司農令 10년, 大司農 3년, 搜粟都尉 10년 등을 거쳐 무제 후원 2년(기원전 87년) 수속도위 겸 御史大夫에 임명되고, 이 해에 霍光, 金日磾, 上官傑 등과 후사를 이을 어린 황제 昭帝를 보필하라는 유조를 받는다.¹⁸⁾ 이렇듯 단 한 차례의 실각도 없이 장기간 고위관료로 승승장구한 이유는 무제 통치기간의 모든 정책에 소용되는 막대한 비용이 그에 의해 지탱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에 화답하듯 무제는 임종 시 그에게 후사를 부탁했을 정도로 신임하던 股肱之臣 이었다. 즉 그는 무제와 정책적 동반자이자 무제 정치사상의 충실한 조력자로 무제시기에 대한 긍정과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그것은 아마 桓寬같은 철저한 유가적 가치관을 가진 지식인이 보기에는 「당대의 실정에 의거하고 시세의 변화에 부합하여, 道術을 추송하고 權利를 숭상하였고 …… 멋대로 末利를 좇고 옛것은 본받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 비판이 무제 독존유술의 실체를 밝히는 단서라고 본다. 위의 경력에서 보듯이 상홍양은 무제의 재위시 하루도 조정을 떠난 적이 없이 승승장구한 최고위 관료이다. 결국 당시, 즉 무제의 시대가 결국 유가의 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桓寬의 평가와 같이 상홍양은 유가를 정책의 근본 기저로 삼지 않고 60여년 기간 동안 승승장구하며 관직생활을 한 것이다. 이제부터 상홍양 및 조정 관료들의 말을 살펴보자.

Ⅲ. 桑弘羊의 儒家 비판

大夫[어사대부 상홍양]가 말했다. “文學이 聖스럽고 지혜롭다고 칭송하는 孔子는 魯를 다스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고, 齊에서는 쫓겨나고 衛에서도 기용되지 않았으며, 匡에서는 포위되고 陳과 蔡에서는 곤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무릇 자신이 기용될 수 없는 때임을 알고서도 유세하며 다닌 것은 역지를 부린 것이고, 곤란함을 알고서도 그만두지 않은 것은 탐욕을 부린 것이며, 자신을 속인 줄도 모

18) 班固《漢書》〈車千秋傳〉「武帝疾，立皇子鉤弋夫人男爲太子，拜大將軍霍光、車騎將軍金日磾、御史大夫桑弘羊及丞相千秋，並受遺詔，輔道少主。武帝崩，昭帝初即位，未任聽政，政事壹決大將軍光。千秋居丞相位，…… 詔昭帝世，國家少事，百姓稍益充實。始元六年，詔郡國舉賢良文學士，問以民所疾苦，於是鹽鐵之議起焉。」

르고서 간 것은 어리석었기 때문이고, 곤욕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네 가지 일은 보통 사람도 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군자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상앙은 景監을 통해서 왕을 만날 수 있었고, 범저는 王稽에 의해 천거되었습니다. 따라서 士는 士를 통해 천거되고, 여자는 중매쟁이를 통해 시집갑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간 뒤에 총애 받고 士가 천거된 뒤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중매쟁이나 추천자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孔子가 남의 추천을 받아 각 국의 군주를 만날 수 있었으면서도 끝내 중용되지 못하였던 것은, 그가 賢士도 아니고 才女도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大夫曰: 文學所以稱聖知者, 孔子也, 治魯不遂, 見逐于齊, 不用于衛, 遇圍于匡, 困于陳·蔡. 夫知時不用猶說, 強也; 知困而不能已, 貪也; 不知見其而往, 愚也; 困辱不能死, 恥也. 若此四者, 庸民之所不爲也, 何況君子乎. 商君以景監見, 應侯以王稽進. 故士應士, 女因媒. 至其親顯, 非媒士之力. 孔不以因進見而能往者, 非賢士才女也.)¹⁹⁾

孔子는 살아생전 남에 의탁해 제후들을 적지 아니 만났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이것은 중매로 시집간 여인이라도 자신의 재능으로 사랑을 받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공가가 무능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공자는 현자도 재녀도 못되는 인물이다. 상홍양의 질타는 매섭다. 게다가 법가의 상앙이 이룬 성취를 칭찬하며 공자를 비난하는 것에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발언이 戰國시기 어느 학파에서 공자와 儒家를 비난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사의 상식인 기원전 140년 무제의 독존유술이 선포된 지 60년이 지난 후, 漢 昭帝 始元 6년(기원전 81년)에三公의 위치에 있는 어사대부 상홍양의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공자의 가르침이 시의적절한 것이 아니라 지적한다.

大夫가 말했다. “말은 잘 하여도 시세의 변화를 모르면 논설을 잘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림쇠를 들고서 曲尺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수평기를 잡고서 떡줄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구멍에만 통하고 하나의 이치만 알 뿐 전체를 저울질 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매미가 눈을 모르는 것과 같고, 고집스럽게 옛 문장에만 근거하여 현재의 일에 임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辰星과 參星이 서로 엇갈리는 것과 같으며, 비파에 雁足を 붙여놓고 비파의 음을 고르려는 식이니, 완고하여 다른 사람의 뜻과

19) 《鹽鐵論》〈大論〉.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孟軻가 제후에게 천대받았던 이유입니다.”(大夫曰：善言而不知變，未可謂能說也。持規而非矩，執准而非繩，通一孔，曉一理，而不知權衡，以所不睹不信人，若蟬之不知雪，堅據古文以應當世，猶辰參之錯，膠柱而調瑟，固而難合矣。孔子所以不用于世，而孟軻見賤于諸侯也。)²⁰⁾

그의 속하인 御史의 말에서도 조정 관료들의 孔孟과 유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御史가 말했다. “文學들은 仲尼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그의 덕을 칭송하면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魯와 衛일대에서 도를 닦고 洙水와 泗水 일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은 그로 인해 변한 것이 없었고, 세상은 그로 인해 다스려지지도 않았으며, 魯나라는 더 쇠약해졌습니다. 齊 宣王은 儒家들을 칭찬하고 학문을 존중하였고, 孟軻와 淳于髡와 같은 무리들은 上大夫의 祿을 받으면서 직책을 맡지 않고 국사를 논하였는데, 당시 齊의 稷下에 이러한 학자들이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 이처럼 유자들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임금을 받드는데 한 번도 실효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御史曰：文學祖述仲尼，稱誦其德，以爲自古及今，未之有也。然孔子修道魯·衛之間，教化洙·泗之上，弟子不爲變，當世不爲治，魯國之削滋甚。齊宣王褒儒瘝學，孟軻·淳于鑠之徒，受上大夫之祿，不任職而論國事，蓋齊稷下先生千有余人。……若此，儒者之安國尊君，未始有效也。)²¹⁾

孟軻는 옛 학문만을 고집하여 시대가 필요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梁과 宋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孔子는 사각형을 만들 줄은 알았지만 원은 만들 줄 모르는 것처럼 융통성이 없었기에 黎丘에서 굶주렸습니다. 지금 후대의 유자들은 덕을 닦는 데에만 힘을 쓰고 때로 궁핍한 일이 있어도, 덕을 따르지 않는 일은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周가 건국한 이래 지금까지 천여 년이 지났는데도 오직 文王·武王·成王·康王만이 있을 뿐이어서, 한 마디 말이라도 하려면 반드시 그 중의 한 사람을 거론하니, 마치 자기가 미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칭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절름발이가 먼 곳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그곳에 갈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孟軻守舊術，不知世務，故困于梁·宋。孔子能方不能圓，故飢于黎丘。今晚世之儒勤德，時有乏匱，言以爲非，因此

20) 《鹽鐵論》〈相刺〉.

21) 《鹽鐵論》〈論儒〉.

不行. 自周室以來, 千有餘歲, 獨有文·武·成·康, 如言必參一焉, 取所不能及而稱之, 猶覽者能言遠不能行也.)²²⁾

당연한 말이겠지만, 御史의 발언은 상홍양과 일맥상통한다. 공자의 후학들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물론 이것들 모두 당시 유생을 겨냥한 발언이다. 우선 孔門 후학들에 대한 비판을 보자. 상홍양의 비판은 공자의 제자들에게도 신랄하다.

무릇 仲尼의 문하에 있었던 칠십 명의 제자들은 부모를 떠나고 집을 버린 채, 책을 읽어지고 공자를 따라다니며 농사도 짓지 않고 학문을 배웠지만, 사회의 혼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옥 부스러기가 상자에 가득하다고 해서 보물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詩·書를 외우고 책 상자를 짊어졌다고 해서 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있을 뿐이지, 번잡한 문장이나 많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仲尼之門, 七十子之徒, 去父母, 吸家室, 負荷而隨孔子, 不耕而學, 亂乃愈滋. 故玉屑滿篋, 不爲有寶; 詩書負笈, 不爲有道. 要在安國家, 利人民, 不敬繁文衆辭而已.)²³⁾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구부러집니다. 그러므로 子路는 그 강함 때문에 죽었고 宰我는 그 유약함 때문에 살해되었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공자에게 배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과신하여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큰 임무를 맡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따르기를 바라면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따르지는 못하고,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드러내려고 하고,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자신의 몸값을 높이니, 이것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는 그 몸이 젓갈이 된 까닭입니다. (剛者折, 柔者卷. 故季由以強梁梁宰我以柔弱殺. 使二子不學, 未必不得其死. 何者? 矜己而伐能, 小知而巨牧, 欲人之從己, 不能以己從人, 莫視而自見, 莫賈而自貴, 此其所以身殺死而終菹醢也.)²⁴⁾

상홍양이 보기에 공자의 제자들은 일생을 허비하다 비명횡사하였다. 물론 그 원인 제공자는 공자이다. 이 밖에도 조정측은 자신들의 주관적 분석만 제시하는 것이

22) 《鹽鐵論》〈論儒〉.

23) 《鹽鐵論》〈相刺〉.

24) 《鹽鐵論》〈頌賢〉.

아니라 객관적 권위를 빌려 유가를 폄박하기도 한다. 漢나라 당시에도 권위와 명성이 높았던 晏子의 말까지 인용해 유가를 비판한다. 안자는 특정학과에 치우친 인물이라 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비판은 유가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丞相史가 말했다. “晏子が 이르기를, ‘儒者들은 말은 화려하지만 실행하는 일은 적고, 음악에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도 백성들의 일에는 소홀하며, 장례기간이 길어 산 사람을 해치고, 장례를 후하게 치러 생업을 손상시키고, 예가 번거로워 행하기 어려운가 하면, 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따르기 어렵고, 과거를 칭송하고 현재를 비난하며,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오히려 천하게 여기고 전해들은 것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은 구부러져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세상의 준칙이라고 생각합니다.(丞相史曰: 晏子有言, “儒者華于言而寡于實, 繁于樂而舒于民, 久喪以害生, 厚葬以傷業, 禮煩而難行, 道迂而難遵, 稱往古而訾當世, 賤所見而貴所聞.” 此人本枉, 以己爲式.)²⁵⁾

유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晏子가 조목조목 적시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며 전해져 왔다. 이런 역사적 평가는 당시까지도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IV. 昭帝 시기 儒家 위상

역사속으로 사라진 유생들은 차치하고, 桑弘羊 등 조정 대신들 눈에 비친 당시 漢儒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속내는 이 회의에 당시의 儒生이 참여한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었다. 우선 儒家와 국정 운영을 총체적으로 연결한 발언을 보자.

大夫가 말했다. “허, 당신네 유생들은 재주는 용렬하여 행하는 바도 없고, 말은

25) 《鹽鐵論》〈論誹〉, 이 말은 《墨子》에 실려 있는 말과 취지가 부합한다. 〈非儒下〉: 「晏子曰: “不可. 夫儒, 浩居而自順者也, 不可以教下; 好樂而淫人, 不可使親治; 立命而怠事, 不可使守職; 宗喪循哀, 不可使慈民; 機服勉容, 不可使導衆. 孔某盛容修飾以蠱世, 弦歌鼓舞以聚徒, 繁登降之禮以示儀, 務趨翔之節以觀衆, 博學不可使議世, 勞思不可以補民, 累壽不能盡其學, 當年不能行其禮, 積財不能贍其樂, 繁飾邪術以營世君, 盛爲聲樂以淫遇民, 其道不可以期世, 其學不可以導衆.」

많지만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실제와 겉모습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남의 담장에 구멍을 뚫거나 담을 넘거나 하는 도적은 예로부터 사람들의 근심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魯나라 군주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평생 세상에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행동에는 의심이 많아 결단력이 부족하고 주장은 시의에 동떨어져 정치에 요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秦始皇은 그들의 경전을 불살라 없애 세상에 통용시키지 않았으며, 渭水 유역에서 그들을 매장하고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하니 어찌 입과 혀를 움직이고 얼굴을 피고 눈썹을 치키면서 조정의 논의에 참가하여 국가의 대사를 알가알부할 수 있었겠습니까.”(大夫曰: 嘻, 諸生闢茸無行, 多言而不用, 情貌不相副. 若穿逾之盜, 自古而患之. 是孔丘斥逐于魯君, 曾不用于世也. 何者? 以其首攝多端, 迂時而不要也. 故秦王燔去其術而不行, 坑之渭中而不用. 乃安得鼓口舌, 申顏眉, 預前論議, 是非國家之事也?)²⁶⁾

한마디로 말해 儒家는 예나 지금이나 國政에 참여할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焚書坑儒는 유가가 겪은 가장 쓰라린 경험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이 사건은 오히려 漢代 유가의 정치적 출발점이다. 漢儒는 자신 학과의 역사적 가치를 분서갱유 사건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유가를 죽이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와 仁政, 德政을 통해 법치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漢儒는 秦나라의 법가 위주 정치에서 벗어나야만 나라가 長久하며 그 일은 실행할 책임자는 유가라 강변한다. 이런 논리를 담은 대표작이 유명한 《過秦論》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듯 漢나라의 대신들은 昭帝시기까지도 공자와 그의 후학들을 세상 물질 모르며, 실제로 어떤 일도 성취한 적이 없는 무리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만 떠벌이기에 분서갱유를 자초한 것이라는 논조의 발언을 보면, 당시 조정 고관들의 유가에 대한 인식을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발언들은 당연히 논쟁의 대상인 당시 漢儒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모욕이 독존유술로 부활한 유가의 모습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상홍양은 통시적으로 보아 秦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유가는 지금 漢나라 국정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한 것이다.

26) 《鹽鐵論》〈利議〉.

大夫가 말했다. “당신들의 말은 마치 고아가 孝에 대해 말하고, 앓은뱅이가 지팡이를 논하며, 가난한 사람이 仁에 대해 말하고, 비천한 사람이 정치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와 무관한 일은 쉽게 말할 수 있고, 옆에서 논의하기 쉽지만, 정작 일을 맡게 되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과거 公孫弘은 배움을 입고 倪寬은 흰 비단으로 된 검소한 도포를 입었는데, 입는 것은 하인이나 하녀의 것과 같았고 먹는 것은 일꾼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淮南王이 모반을 꾀하고, 밖에서는 蠻夷가 폭동을 일으켰을 때, 도적들이 그치지 않았고, 사치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당신들은 마치 역병이 돌 때 무당들이 단지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것과 같아서, 어찌 국가의 어려운 재정을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大夫曰：孤子語孝，鬻者語杖，貧者語仁，賤者語治。議不在己者易稱，從旁議者易是，其當局則亂。故公孫弘布被，倪寬練袍，衣若僕妾，食若庸夫。淮南逆于內，蠻·夷暴于外，盜賊不爲禁，奢侈不爲節。若疫歲之巫，徒能鼓口舌，何散不足之能治乎?)²⁷⁾

大夫가 말했다. “전에 千乘郡 출신 倪寬이 《尙書》를 익혀 그 지위가 九卿 이상까지 오른 예로부터 우리가 듣거나 본 천거된 유생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발탁되고 승진하여 정사에 참여할 정도로 그 지위가 매우 높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식견이 출중하여 국가를 위해 적체된 것을 해결하고 공을 세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大夫曰：自千乘倪寬以治《尙書》位冠九卿，及所聞睹選舉之士，擢升贊憲甚顯，然未見絕倫比，而爲縣官興滯立功也。)²⁸⁾

御史가 말했다. “丞相 公孫弘은 《春秋》의 도리로 先帝께 유세하여 곧三公의 지위에 올라 周公, 召公과 같은 반열에 오르자, 큰 권세에 기대어 천하의 모범이 되고자 하여, 옷은 화려한 것을 입지 않고 음식도 맛있는 것을 두 가지 이상 먹지 않으며 천하에 술선하였으나,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博士 褚泰와 徐偃 등은 先帝의 명을 받아, 節을 세우고 傳車를 타고 郡國을 돌아보며 효자와 청렴한 인물을 천거하고 백성들을 독려하였지만, 망쳐진 풍속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니다. 賢良하고 方正하며 文學에 통달한 유생을 불러 등용하고 관직과 작위를 파격적으로 승진시켰으며, 이 중에는 卿이나 大夫의 지위에 까지 이른 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燕 昭王같이 士를 천거하고 周 文王 같이 현자를 널리 등용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아직 무슨 공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御史曰：公孫丞相以《春秋》說先帝，遽及三公，處周·召之列，據萬里之勢，爲天下准繩，衣不重彩，食不兼味，以先天下，而無益于治。博

27) 《鹽鐵論》〈救匱〉.

28) 《鹽鐵論》〈刺復〉.

士褚泰·徐偃等，承明詔，建節馳傳，巡省郡國，舉孝廉，勸元元，而流俗不改。招舉賢良·方正·文學之士，超遷官爵，或至卿大夫，非燕昭之薦士，文王之廣賢也?)²⁹⁾

인용문의 이해를 위해 우선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위 단락은 모두 이전에 유가가 중용되었지만 무능하고 한심했다는 상홍양의 강변이다. 그가 말한바, 九卿은 漢代 중앙정부의 아홉 개의 주요 부서의 수장을 말한다. 九卿 위에는 丞相·太尉·御史大夫의三公이 있었다. 이들을 합쳐 公卿이라 한다. 《漢書》〈倪寬傳〉에 의하면, 倪寬은 武帝 때 《尚書》를 공부하여 천거되고 후에 御史大夫에까지 오른 유학자였는데,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보신에 능하였다고 전해진다. 公孫弘은 武帝 때 《春秋》를 익혀 博士가 되고 나중에 丞相에까지 올라, 무제 시대 유가 出仕의 상징적 인물이며, 유가의 수신제가를 숭상하였다. 褚泰와 徐偃은 모두 武帝 때의 博士인데, 武帝시기 위폐의 성행과 토지검병의 폐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코자 元狩 6년(기원전 117년) 각 郡國에 파견했는데 《史記》〈平準書〉와 《漢書》〈武帝紀〉에 이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사실 그들이 파견된 것이 상당한 지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倪寬, 公孫弘 말고 눈에 띄는 顯官은 없었다고 봐야한다.

이상에 열거된 몇 사례들은 유가가 고관으로 승진한 드문 사례이다. 상홍양과 어사는 이런 극히 소수의 사례를 전체인양 말한 것이다. 그 몇 사람들이 보인 무능과 기대이하의 실적을 핑계 삼아 유가 전체의 능력을 불신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2장에서 소개한 역사속의 유가에 대한 비판보다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듯하다. 물론벼락출세한 몇 명만을 거론하며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에 속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당시 유가에서 출세한 사람은 그들 말고는 없었다는 반증이다. 사실 당시 대다수 유가들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大夫가 말했다. “당신들 문학은 말은 잘 하지만 행하지는 못하고,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힐뜯고, 가난한 처지에 부자를 비난하고, 큰 소리는 치지만 따르지는 못하고, 고상한 척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비천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트집만 잡으면서 이런 수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명성을 구하고 칭찬을 받으려 합니다. 대체로 봉록이 한 움큼도 못되는 사람은 정치를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29) 《鹽鐵論》〈刺復〉.

집안에 식량이 한 석도 못되는 사람은 국사를 의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생들은 모두 가난하고 초라하여 의관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국가의 정책과 정부의 일을 알겠습니까.”(大夫曰：文學能言而不能行，居下而訕上，處貧而非富，大言而不從，高厲而行卑，誹譽訾議，以要名采善于當世。夫祿不過秉握者，不足以言治，家不滿檐石者，不足以計事。儒皆貧羸，衣冠不完，安知國家之政，縣官之事乎？何斗闢造陽也)³⁰⁾

끼니걱정에 옷도 못 갖추어 입는 자들이 儒學에 정통한 자라고 뽑혀서 조정에 모여든 유생의 실체이다. 이 궁핍하고 처량한 모습과 獨尊儒術을 어찌 연계할 수 있겠는가. 유생들에 대한 大夫의 발언은 경멸에 가깝다. 너희들은 식구도 부양 못 하면서 입으로는 정치를 운운한다는 것이다.

大夫가 말했다. “무릇 속은 비뚤어졌지만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하고, 욕심이 없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유생의 본 모습 아닙니까. …… 지금 당신들은 안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도 없고 밖으로는 칭찬받을 일을 하지 못하면서, 가난하고 신분도 천한 처지에 이러쿵저러쿵 따지기를 좋아하니, 비록 仁義를 말하지만 역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大夫曰：夫懷枉而言正，自托于無欲而實不從，此非士之情也？ …… 今內無以養，外無以稱，貧賤而好義，雖言仁義，亦不足貴者也.)³¹⁾

상홍양이 본 漢나라 儒家들은 표리부동하다. 그들은 가난하고 천하며 출세를 바라며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 이것이 그의 심중에 있는 昭帝 당시 유가들의 모습이다.

武帝 이후 儒生 중 몇 사람이 출사하여 드물게는 승상에 오른 자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대부분 현량이니 문학이니 허울 좋은 명예직이었고, 그들의 생활은 궁핍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았음을 엿볼 수 있다.

문학과 현량도 자신들이 사회적 지위가 저열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래 발언 속에는 여실히 그들의 처지가 투영된다.

30) 《鹽鐵論》〈地廣〉.

31) 《鹽鐵論》〈毀學〉.

文學이 말했다. “지위가 낮다고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니며, 가난하다고 행실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顏淵은 자주 끼니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文學曰: 夫賤不害智, 貧不妨行. 顏淵屢空, 不爲不賢. 孔子不容, 不爲不聖.)³²⁾

유생의 당시 처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조정에서 그들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文學이 말했다. “나라에 賢士가 있는데도 쓰이지 않는 것은 士의 잘못이 아니고 군주의 수치입니다. …… 지금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유생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주제에 말만 많다고 걱정하지만, 유생들 역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여 재앙이 많아질까 걱정합니다.” (文學曰: 國有賢士而不用, 非士之過, 有國者之恥. …… 當此之時, 亦不能論事矣. 今執政患儒貧賤而多言, 儒亦憂執事富貴而多患也.)³³⁾

文學들은 자신들이 등용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신분이 낮고 가난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武帝의 失政에서 시작되었다고 예들러 비판한다.

文學이 말했다. “얼음과 솥은 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해와 달은 동시에 비추지 않습니다. 公孫弘이 丞相이 되었을 당시 황제는 바야흐로 책략을 세워 사방의 오랑캐를 토벌하는 데에 뜻이 있었기에, 권모술수의 책략이 채용되고 荊楚의 용사들이 등용되어, 장수 중에는 列侯에 봉해져 食邑을 받기도 하고 전공을 세운 자들도 모두 후한 상을 받았으니, 이러한 까닭에 전쟁에 능한 무사들이 이로부터 중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전쟁이 끊이지 않아 출정하는 군대들은 서로 길가에서 마주칠 정도였고, 갑옷은 헤어지고 병사들은 피폐하고 국가의 재정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전매의 법을 만들자 이익을 피하는 관리들이 일어나고 강태공 같은 인물들은 숨게 되었습니다. 涇水와 淮水에 운하를 만들어 漕運을 통하게 하고, 東郭 咸陽과 孔僅은 염철 전매제를 시행하는 등 각종 이익 사업을 도모하고, 부자들은 爵位와 관직을 사서 형벌과 죄를 면제받았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출은 점점 많아 지는데도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만을 좇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32) 《鹽鐵論》〈地廣〉.

33) 《鹽鐵論》〈國疾〉.

함께 徵求하니,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고 피폐한 끝에 법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한 관리들이 등장하였고, 見知와 廢格의 법이 생겼던 것입니다. 杜周와 咸宣 같은 무리들은 엄격한 법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함으로써 높은 지위에 올랐고, 王溫舒와 같은 무리들은 매가 사냥감을 던치듯 가혹한 형벌로 처단함으로써 출세하였습니다. 당시는 仁義에 의지하여 道로써 군주를 모시려는 사람이 적었고, 구차하게 군주의 뜻에 영합하여 환심을 사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公孫弘 혼자서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文學曰: 冰炭不同器, 日月不并明. 當公孫弘之時, 人主方設謀垂意于四夷, 故權譎之謀進, 荊·楚之士用. 將帥或至封侯食邑, 而勅獲者咸蒙厚賞. 是以奮擊之士由此興. 其後, 干戈不休, 軍旅相望, 甲士糜弊, 縣官用不足, 故設險興利之臣起, 礪溪熊羆之士隱. 涇·渭造渠以通漕運, 東郭咸陽·孔僅建鹽·鐵, 策諸利, 富者買爵販官, 免刑除罪, 公用彌多而爲者徇私, 上下兼求, 百姓不堪, 抗弊而從法, 故慳急之臣進, 而見知廢格之法起. 杜周·咸宣之屬, 以峻文決理貴, 而王溫舒這徒以鷹隼擊殺顯. 其欲據仁義以道事君者寡, 偷合取容者衆. 獨以一公孫弘, 如之何?)³⁴⁾

賢良도 文學과 마찬가지로 무제 시기의 정치에 문제가 많았고, 유가가 등용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建元 초기만 해도 예의를 숭상하고 덕을 닦아 천하가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간사한 신하들이 각기 술수를 부려 태평성세를 해치고 어지럽혔으니, 밖으로는 산과 바다의 자원을 독점하고 조정에서는 각종 영리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楊可는 告緡令 집행하고, 江充은 사치한 복식을 단속하고, 張湯은 법령을 고치고, 杜周는 재판관을 다스렸는데, 처벌·속전·재판·징계에 관한 조항 외에 미세한 사안도 모두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이루 다 기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夏蘭과 같은 무리들은 멋대로 사람을 잡아들이고, 王溫舒와 같은 무리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였으니, 잔혹한 관리들이 풀이 돋듯 일어나서 선량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은 자신의 목을 보전하지 못했고, 세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종족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武帝께서 이를 깨달으셔서, 이에 강충 등 나쁜 무리들을 주살함으로써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천하의 책망을 막으시자, 이후 백성들은 마음이 놓이고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몇 해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는 아직도 사악한 자가 있어 하고 해로운 정치 관행을 가지고 있고, 強暴한

34) 《鹽鐵論》〈刺復〉.

재상은 아직도 억지로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 형벌을 남용하고, 힘있고 간교한 자들은 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해칩니다.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은 사치를 일삼고, 가난하고 친한 백성들은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입니다. (建元之始, 崇文修德, 天下乂安. 其後邪臣各以伎藝, 虧亂至治. 外障山海, 內興諸利. 楊可告緡, 江充禁服, 張大夫革命, 杜周治獄, 罰贖科適, 微細并行, 不可勝載. 夏蘭之屬妄搏, 王溫舒之徒妄殺. 殘吏萌起, 擾亂良民. 當此之時, 百姓不保其首領, 豪富莫必其族姓. 聖主覺焉, 乃刑戮充等, 誅滅殘賊, 以殺死罪之怨, 塞天下之責, 然居民肆然復安. 然其禍累世不復瘡痍至今未息. 故百官尚有殘賊之政, 而強幸尚有強奪之心. 大臣擅權而擊斷, 豪猾多黨而侵陵. 富貴奢侈, 貧賤篡殺.)³⁵⁾

문학과 현량들의 발언을 통해 보면, 무제시기는 간사하고 올바르지 못한 신하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폐단이 큰 시기였다. 물론 그 首惡은 무제이지만 감히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못하고 예들러 말하고 있다, 이것이 유생들이 본 무제의 참담한 정치 성적표이다. 유가가 보기에 무제시대는 민생이 그야말로 塗炭에 빠진 시기였다. 그리고 거기에 유가의 역할이나 자리는 없었다. 武人과 법가들이 판을 치고 권세를 휘두른 시기였다. 그리고 그 폐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제의 독존유술 이후로 유가만이 정권을 맡거나 다른 학파가 쫓겨나는 일은 없었던 것을 말한다. 무제가 공손홍 등 몇 명의 유가인물을 기용한 것은 사실이나,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었다. 이상의 모든 자료를 통해 볼 때 사회전반에서 유가의 지위는 여전히 저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제의 「罷黜百家 獨尊儒術」은 과도하게 인식되었고, 중국 학술 및 정치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다음의 일화를 보자.

孝元황제는 宣帝의 태자이다. …… 성품이 인자하고 儒學을 좋아하였다. 宣帝가 쓰는 사람에 법가관리가 많고 형명학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 한번은 父皇을 모시다가 조용히 말하기를 “폐하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마땅히 儒生을 써야 할 것입니다.” 宣帝가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漢나라 皇室은 스스로의 제도가 있으니 본래 霸道와 王道를 섞어 사용하였다. 어찌 德教에만 의지하여 周나라의 정치를 하겠느냐 또 속된 儒者들은 세상의 시무에 밝지 않아 옛날은 맞고 지금은 그르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을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눈을 흐

35) 《鹽鐵論》〈國疾〉.

리게 하고, 지켜야 할 바를 모르게 하니 어찌 정치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 漢 皇室을 어지럽힐 사람은 태자로다” (孝元皇帝, 宣帝太子也. …… 柔仁好儒. 見宣帝所用多文法吏, 以刑名繩下, …… 嘗侍燕從容言: 陛下持刑太深, 宜用儒生. 宣帝作色曰: 漢家自有制度, 本以. 王道雜之, 奈何純住任德教, 用周政乎! 且俗儒不達時宜, 好是古非今, 使人眩於名實, 不知所守, 何足委任. 乃歎曰: 亂我家者, 太子也)³⁶⁾

인용문에 나오는 宣帝(기원전 73년-49년 재위)는 엄철회의를 주최한 昭帝의 뒤를 이어 등극한 황제이다. 태자는 후일의 元帝(기원전 48년-33년 재위)이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儒家를 보는 두 사람의 시각차가 판이하다. 武帝(기원전 141년-87년 재위)의 이른바 「獨尊儒術」은 기원전 140년의 일로 알려져 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漢나라 황제의 儒家觀은 桑弘羊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獨尊儒術의 실상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외에도 《漢書》를 보면 곳곳에서 武帝 이후에도 百家의 학술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실 지금까지 儒家에 의해 異端 혹은 方術이라 지목된 학과의 서적이 면면히 전해지는 것만 보아도 獨尊儒術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³⁷⁾

V. 결론

13세에 入仕하여 생을 마감할 때 까지 武帝 조정의 실세였던 桑弘羊과 그를 보좌하는 관료들의 언설에선 獨尊儒術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공자와 유가에 대한 비판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절대군주인 武帝를 상기할 때, 이들의

36) 《漢書》〈元帝紀〉.

37) 일로 儒學을 좋아했다는 元帝도 陰陽家를 찾는 조서를 내리기도 한다. 《漢書》〈元帝紀〉: 「三年, 六月, 詔曰: 蓋聞安民之道, 本繇陰陽. 間者陰陽錯謬, 風雨不時. 朕之不德, 庶幾群公有敢言朕之過者, 今則不然. 媮合苟從, 未肯極言, 朕甚閔焉. 永惟烝庶之饑寒, 遠離父母妻子, 勞於非業之作, 衛於不居之宮, 恐非所以佐陰陽之道也. 其罷甘泉, 建章宮衛, 令就農. 百官各省費. 條奏毋有所諱. 有司勉之, 毋犯四時之禁. 丞相御史舉天下明陰陽災異者各三人. 於是言事者衆, 或進擢召見, 人人自以得上意」 이렇듯 유학 외의 학파와 학설은 독존유술 이후에도 여전히 조정과 민간에서 지속되었다.

언설은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아울러 공자와 맹자를 입에 달고 사는 민간의 문학과 현량은 벼슬은커녕, 궁핍하여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논쟁에 나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이 천하고 가난한 이유는 조정에서 자리를 얻지 못해서라 항변한다. 이런 기록을 보고 무엇으로 獨尊儒術로 인해 유가가 득세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元帝紀〉의 기록을 보더라도, 武帝부터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기에 儒家는 그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되는 존재였다. 《鹽鐵論》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武帝 및 昭帝, 宣帝까지의 漢代 中期까지 儒家는 현실 정치나 학술영역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鹽鐵論》은 사료성이 대단히 높은 자료이다. 본고에서 못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더 다루고자 한다.

【參考文獻】

- 郭沫若, 《鹽鐵論讀本》北京, 科學出版社, 1957.
 楊樹達, 《鹽鐵論要釋》北京, 科學出版社, 1957.
 王利器, 《鹽鐵論校注》北京, 古典文學出版社, 1958.
 王佩諍, 《鹽鐵論札記》北京, 商務印書館, 1958.
 馬非百, 《鹽鐵論簡注》北京, 中華書局, 1984.
 盧烈紅, 《新譯鹽鐵論》臺北, 三民書局, 1996.
 司馬遷, 《史記》北京, 中華書局, 1982.
 班 固, 《漢書》北京, 中華書局, 1982.
 민두기, 〈염철론연구〉(상·하); 서울, 《역사학보》 10권, 11권, 1958, 1959.
 孫景壇, 〈漢武帝罷黜百家獨尊儒術子虛烏有〉; 《南京社會科學》 6期, 1991.
 劉偉杰, 〈漢武帝獨尊儒術問題的研究現狀與反思〉; 《南京社會科學》 2期, 2007.
 拙 稿, 〈漢代罷黜百家獨尊儒術札記〉; 서울, 《中國語文論譯叢刊》 12집, 2004.

【中文提要】

《漢書》云「孝武初立, 卓然罷黜百家, 表章六經」, 如此以來, 世人盛稱的武

帝「獨尊儒術」之說法早已流行。然而從《鹽鐵論》的記錄來看，武帝昭帝時期朝廷大臣言論行事，無處不與儒術相反，其實武帝對儒生，大體來說尊而不用，故到昭帝時儒家文學賢良公開評擊武帝失政，愚案武帝「罷黜百家，獨尊儒術」之既成說法不合歷史事實而且不免誇大其詞。

【主題語】

漢武帝 獨尊儒術 《鹽鐵論》 桑弘羊 文學 賢良

투고일: 2013. 4. 15 / 심사일: 2013. 4. 20~5. 5 / 게재확정일: 2013. 5. 10